

우리나라 정보학교육의 회고와 FIABID에 기초한 정보학교육의 전망

Reflection of the Early Curricular Transformation in Library Science and Future Prospect Based on FIABID

현 규 섭*

□ 目 次 □

- I. 서 언
- II. 정보학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한 초기의 논문
- III. 정보학의 개론적 정착
- IV. 도서관학 명칭의 개정을 위한 시도
- V. 현재의 상황
- VI. 정보학교육의 전망
 - 1. FIABIB의 정보학 교과과정
 - 2.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정보시스템학과 교과과정
- VII. 결 언

초 록

1960年代中半부터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은 情報檢索論, 索引 및 抄錄作成法을 도입함으로써 情報學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1970年代에 圖書館學의 명칭개정 논의는 본격적인 情報學의 융합을 시도하려는 표현이었으며 1975년경에는 정보학개론, 도서관자동화론, 정보검색론이 모든 大學의 도서관학과에서 공통적으로 설강되는 학과목이 되었다. 이와 함께 1980年度에 들어서면서 圖書館學의 學問名稱을 文獻情報學으로 변경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韓國情報管理學會도 창설되는등 변화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든 變化를 논리적으로 존립시켜 주었던 主要著作과 論文이 諸現象과 결부되어 분석되었다.

1990年代를 위한 情報學의 方向을 FIABID curriculum과(독일의 사례) 情報시스템學科(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사례)를 들어 提示하였다.

ABSTRACT

The evoluti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changing role in information and library systems are raised to force significant changes in Korea.

A number of library schools started new subject in their curriculum and revised their present curriculum.

As a result the rationale for the revision and contents of new subject is provided from 1970 decade. With long-ranging effect on the library profession we, in Korea, should review for our curricular implications. The information System Department i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nd FIABID curriculum in Germany are proposed to consider in undergoing transformation in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I. 서 언

文化人類學者인 에드문트 리치(Edmund

Leach)는 文化로 접근하는 方法으로 實證主義(empiricism)와 構造主義(Rationalism)가 있다고 말한다. 전자는 文化를 分析하고 高證하는데 철저

* 공주사대 도서관교육과 교수

한 民族誌의 資料에 의존하여 통계적으로 접근한다. 후자는 수학적이거나 통계적으로 간결하게 定型化된 諸規則에 구속된 事象은 人間精神의 構造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神話나 그 文化에 속한 人間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情報에 더욱 집착한다. 전자를 신봉하는 學者들(예컨대 Radcliffe-Brown, A.R. Fernandez R 등)은 「觀念의 구조는 二次的이며 관찰불가능한 抽象物」인 고로 일체가 허구라고 생각한다. 후자를 신봉하는 學者들(Levi-Strauss, C., Erans-Pritchard, E.E.)은 「文化시스템은 人間の 集合的 性質—즉 人間精神—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주장한다. 이 두 理念은 결코 相反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相互補完性이 있는 것이라고 「리치」는 말한다.¹⁾

이 拙文은 거의 완벽하게 實證主義的 研究方法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도 허용된다면 構造主義的 接近法이라고 변명하고 싶다. 그것은 언제나 統計的 事實(즉 사회조사법이나 통계적 접근)만이 올바른 事實이란 論理에는 강한 의문을 품어 왔으며 특히 歷史를 記述하는 데에는 人間精神이 內部로부터 創造物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에 기인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방법은 관찰자 자신의 偏見을 기초로 하기 쉽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 拙文의 몇가지 前提중 가장 명백한 것은 바로 이제 지적한 偏見의 限界性이다. 모든 事實이 관찰자 자신의 관념과 경험을 위주로 한 것이다. 다만 앞서 지적한대로 構造主義와 實證主義는 相互補完的이라는 의견이 그 限界性을 인정하기 바랄 뿐이다.

두번째 前提는 情報學과 圖書館學의 境界區分에 관한 것이다. 이들의 융합현상은 이미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한 部門이 다른 한 部門을 흡수해야

한다던가 한 部門이 다른 한 部門의 계승이어야 한다는 論議는 유보한다. 이에 대해서는 MIT의 Joseph C. Licklider가 1974년 NATO 國家情報政策 세미나의 議長으로서 최종 결론을 내렸던 다음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²⁾

“우리가 회의를 통하여 가장 명백해진 것은 情報學의 領域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의문에 있어서 그 境界가 不明確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첫번째 見解는 情報學은 圖書館學이며 또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이다. 두번째 見解는 情報學은 일종의 全情報學(pan-information science)라는 것이다... 이들 견해도 아직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

세번째 前提는 情報學과 圖書館學의 융합에 따라 學問名이 새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것이 文獻情報學으로 귀착하는데 대한 비판적 견해들에 대하여서도 위에 든 두번째 前提에서와 동일한 이유에서 이 拙文의 범위 밖에 속한다. 여기서는 이미 大學의 學科名稱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文獻情報學을 情報學의 分野를 수용하는 學問名으로서 부른다.³⁾

네번째로 여기 인용하는 著述들의 선정은 朴俊植 교수의 「韓國圖書館關係文獻索引(대구:慶北圖書館學會, 1976), 국립중앙도서관(편) 「學術論著總合索引」(서울:국립중앙도서관, 1984) 그리

1) Edmund Leach, Culture and Communication : The logic by which symbols are connected.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76, p. 5.

2) Conant, R.W., The Conant Report : A Study of The Education of Librarians. Cambridge, mass : MIT Press, 1980, pp.78-79.

3) 本文 第4項 도서관학 명칭의 개정을 위한 시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현황을 열거하였다. 그러나 結論的인 판단은 역시 유보하였다. 이 문제는 이를 전공하는 연구자의 영역이라 생각한다.

고 崔貞泰 교수의 “國內圖書館學關係著書目錄”(국회도서관보, 1987, 칠·팔월)을 기초로 하여 필자가 정하였다.

본래 回顧란 관념적인 것이다. 그것은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며 과거의 뜻을 세워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 논문의 전반부가 著述을 중심으로 살펴본 필자가 생각한 情報學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으로 회고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어떤 著述이 더욱 가치 있었다 또는 없었다라는 판단 기준에서가 아니라 어떤 著述이 필자의 견해로서는 하나의 脈을 이루었다는 관점에서 본 것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의 偏見일 수 있다. 그것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問責있기 바란다.

후반부는 독일의 FIABID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情報學과 圖書館學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들에게도 닥쳐올 사태를 전망해 본 것이다. 또한 미국의 Information system 學科(카리포니아 주립대학)의 構成을 예시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

II. 情報學教育의 필요성을 제기한

初期의 論議

우리나라에서 情報學이 圖書館學에서 教育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일기 시작한 연대는 1970年代 初期였다. 1970年 金世翊 교수는 “世界的 趨勢에서 본 韓國圖書館學의 一側面에 대한 論考”(圖書館學 1, 1970 : 103-132)에서 “정보과학의 도입”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분석하고 한국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이 점은(정보과학의 도입)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상식화된 것이

기는 하지만 도서관의 활동과 유리된 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 크게 보면 도서관 봉사 자체가 하나의 도큐멘테이션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깊게 한국의 도서관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p.132)

1971년 12월 鄭駟謨 교수의 論文인 “圖書館名稱의 變遷에 대하여”(도서관학 2, 1971, 십이 : 63-78)는 圖書館學이 情報學의 여러 분야를 受容함에 따르는 學問名變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 現在の「圖書館」은 ‘文獻館’으로 「司書」는 ‘文獻士’로 「圖書館學」은 ‘文獻科學’으로 改稱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만약 社會의 通念上 이른바 「圖書館」은 「文獻館」으로 改稱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이른바 「圖書館學」이라고 하는 學問의 名稱만이라도 改稱되어야 한다.”(p.78)

1972년에 연이어 발표된 “도서관학 4년제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도서관 27(2), 1972 이 : 9-11)과 圖書館學教育-1972年の 館界와 展望-(도협월보 13(12), 1972 십이 : 13-15)은 圖書館學이 情報學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할 시대적 상황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본격적으로 情報學을 수용한 圖書館學의 學問名을 “文獻情報學”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며 鄭駟謨 교수의 두편의 논문인 “情報科學의 屬性과 文獻情報學”(중대도서관학보 2, 1973 육 : 1-47)과 “文獻情報學의 形成理論”(한국비블리오 2, 1974 : 38-65)이 이에 해당된다. “情報學의 理論的 定義와 圖書館學의 영역확장의 필요성은 1973년에 崔成眞 교수에 의하여

4) 정필모 교수는 1972년에 文獻科學이란 학문명칭을 再考하는 論文을 발표한 후 文獻情報學이란 學問名을 창출하였다. “學問名稱으로서의 文獻科學에 대한 再考”, 도협월보 13(9), 1972 구 : 13-15.

심도있게 전개되었다. “圖書館學과 情報學—그境界區劃을 이룬 文獻에 대한 考察—”(圖書館學報 2, 1973 : 177-204)과 1974년에 발표된 “圖書館學教育의 새 方向 : 傳統的 教育內容과 情報學의 綜合問題를 中心으로”(도서관 29(4), 1974 사 : 6-14)는 圖書館學의 教育이 나갈 方向을 모색하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었다.⁵⁾

해외의 도서관학은 이미 1950년대에 정보학의 문제가 대두되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히 한국의 도서관학에 도입되었다. 1971년에 金宗會 先生은 연속하여 두개의 論文을 번역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하나는 헤이스, R.M의 “情報學教育”(도협월보 12(6), 1971 육 : 9-11)이고 다른 하나는 “圖書館學, 情報學教育 : 커리큘럼의 發展과 評價”(도협월보 12(7), 1971 칠 : 19-21)였다. 또한 이 분야에 열성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던 세라세비크(Tefko, Saracevic)의 논문도 金泰樹 교수에 의하여 “圖書學科生을 위한 情報學教科課程”(정보관리연구 6(6), 1973 십이 : 156-163)라는 표제로서 번역되었다. 金斗弘 교수는 “情報科學, 그 正體는”이라는 보코 헤럴드(Borko, H.)의 論文을 번역 발표(정보관리연구 5(5), 1972 십 : 138-140)하는 등 1970년부터 1974년까지 집중적으로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相關領域이 문제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연속적이며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던 情報學教育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실은 이보다 선행하여 이루어져 왔던 圖書館學教育의 內容變化를 理論적으로 受容하려는 구체적인 學術行爲이며 合理化를 도모하기 위한 整地作業이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1960년대 중반으로 소급하여 올라가 당시의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

사실 전통적인 圖書館學에 대한 새로운 도전적인 理論의 전개는 索引法에 있었다. 傳統的인 索引

法에 대립하여 개발된 整合索引法(coordinate indexing)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에 圖書館界에 整合索引法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司空哲 교수에 의하여 발표된 “整合索引法에 있어서 Uniterm System에 관한 研究”(도협월보 7(6), 1966 칠·팔 : 17-27)에서 비롯되었다. 실제로 整合索引法이 四年制 圖書館學科에서 강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66년 金世翊 교수의 논문인 “韓國圖書館學의 反省과 展望”에서⁶⁾ 당시 梨花女大 圖書館學科가 도큐멘테이션이란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Information Storage와 Retrieval 등 Information Science의 分野가 많이 도입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도 도서관학과의 커리큘럼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논술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整合索引法이 圖書館學科에서 教育된 時期에 대하여 주목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索引法(이른바 pre-coordinate index에 속하는 方式)에서 整合索引法(이른바 post-coordinate index)으로 전개되는 분기과정은 圖書나 連續刊行物을 자료형태 위주의 관념에서 벗어나 內在된 주제의 情報를 중심으로 하는 관념으로의 확장을 뜻하며 동시에 情報의 電子的 處理를 시도함을 뜻한다. 이것은

5) 후에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共通領域”, 國會圖書館級, 1977 삼 통권122호, pp.10-18을 발표하여 최성진 교수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전진됨을 알 수 있다.

6) 金世翊, “韓國圖書館學科의 反省과 展望”, 도협월보 7(10), 1966 십이 : 11-14 이외에도 “圖書館學의 成立과 韓國圖書館學의 未來像” 국회도서관보 4(7), 1967 칠 : 15-19와 앞서 인용한 “世界的 趨勢에서 본 韓國圖書館의 一側面에 對한 論考”, 圖書館學 1, 1970 십이 : 103-132 등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情報學으로의 확장이다(情報學의 定義, 範疇 및 學問成立의 要素 등에 관한 논의는 이 論文의 범위밖에 속한다).⁷⁾

이런 뜻에서 1968년에 刊行된 司空哲 교수의 「도큐멘테이션 概說」(韓國圖書館協會, 1968, 26 Op.)은 索引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역의 본격적인 해설을 행한 최초의 單行本으로서 한국도서관계에 대한 명백한 확장을 시도하게 한 저술이었다. 이로 인하여 整合索引法과 그것을 중심으로 한 理論(예컨대 디소러스나 情報檢索方法 등)이 整地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약칭으로 KORSTIC)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ORSTIC은 1962년 1월에 정부의 재정출연과 육성법(법률 제2109호)에 의하여 창설되었다.⁸⁾ 1963년에 KORSTIC(후에 정보관리연구로 誌名變更)이란 기관지 형식의 학술지를 발간하였다. 이 학술지는 情報를 처리하는 기법으로서 索引法과 抄錄法을 위시하여 電子的 處理法 시스템에 의한 情報流通의 문제등 情報學(당시에는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수많은 論議를 전개시켰다. 또한 1973년 5월 31일에 KORSTIC에서 개최된 “世界科學情報流通體制=unisist”에 관한 國內의 會議는 情報의 흐름(information flow)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며 標準化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적인 요구를 제기시켰다.⁹⁾

이러한 諸般事情의 變化는 情報關係學과 圖書館學의 융합을 강요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英美國의 情報學에 대한 도서관측의 대응이 긴밀하게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앞서 지적한대로 1970年初에는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受容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실제로 각 대학의 教科目에는 情報學關聯教科가 설정되기 시작하였다. 1976年度

朴尙均 교수의 論文인 “우리나라 圖書館學 教育의 諸問題”(도협월보 17(1), 1976 십이에서는¹⁰⁾ 1974年度의 四個大學 圖書館學科의 教科目表를 제시한 바 있는데 情報學關聯教科目은 情報科學, 情報管理論, 文獻情報特講(이상은 中央大), 文獻情報學(연세대학), 文獻情報論(성균관대학), 情報科學(이화여대) 등이 명시되어 있다.

요약컨데 1970年初半은 우리나라의 圖書館學이 情報學의 理論을 수용하여 이를 하나씩 정착시켜가는 時期였다고 할 수 있다. 우선은 주로 도큐멘테이션에서 첨예된 論議로 대두되었던 索引法과 그와 관련된 言語處理의 問題로 導入口를 열었다고 하겠으며 조만간에 全體論的인 接近으로서 情報學이란 관념적 포괄성에서 文獻情報論(또는 ‘學’)으로서 展開되어 갔다.

Ⅲ. 情報學의 概論的 定着

1970年代 後半에 들어서면서 한국에 있어서는 情報學을 圖書館學과 兩立시켜 共存하는 방식으로 受容하는 時期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大學에서는 圖書館學概論 또는 情報學概論에 속하는 내용을 필수 과목으로 教育하기 시작하였다. 이 경우 圖書館學概論은 독립된 한 單位로 존속하며 情報學關聯의 概論도 또 하나의 독립된 單位로 教育되었던 것이다. 1976년에 刊行된 崔成眞 교수의 情報

7) 그토록 많은 論理 있었으나 아직도 확연하게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구별이 명백한 것이랄 수 없다. 여기서는 새로이 추가되는 情報學의 諸理論을 圖書館學에서 受容하는 영역을 文獻情報學으로 본다.

8) Tow-tear service of KORSTIC in Korea, Korea Journal 4(1), 1964 JAN. : 19-22.

9) 李海寶, 世界科學情報流通體制(unisist), 도협월보 15(1), 1974 일 : 4-6.

10) 朴尙均, “우리나라 圖書館教育의 諸問題”, 도협월보 17(1), 1976 십이 : 13-18.

學原論(아세아문화사, 1976년, 336p.)은 이와 같은 형식의 共存論의 立場을 수용하려는 대학에 가장 적합한 教材였다. 오늘날에도 많은 도서관학과에서는 情報學原論을 개론과목으로 채택하되 圖書館學概論도 入門科目으로 존속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兩立現象을 처음부터 우려하였던 鄭駟謨 교수의 文獻情報學原論(아세아문화사, 1977, 202p.)이 1977년에 刊行되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융합을 시도하며 역사적인 시각에서 情報學을 하나의 圖書館學의 發展狀況으로 해석코자 하였다. 따라서 圖書館學과 情報學을 하나의 통합된 概論科目으로 교육하는 경향도 강하게 대두되어 이를 文獻情報學이란 명칭으로 또는 圖書館·情報學概論이란 教科名으로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 鄭駟謨 교수의 論文“圖書館學教科課程의 模型化를 위한 研究”는 당시의 圖書館教育의 問題點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中間評價를 시도한 점에서 매우 價値있는 연구였다.¹¹⁾ 동 論文에 조사된 22個大學의 圖書館學科에서는 圖書館學概論과 情報學概論을 각각 독립시켜 강의하고 있는 곳이 10個大學이며 圖書館·情報學概論으로 교육하는 곳은 4個大學, 情報學概論만 교육하는 大學도 한 곳이 있었다.¹²⁾

이 조사보고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은(위에 든 概論分野 以外에도) 情報學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情報檢索論과 圖書館自動化論이었다. 이 두 分野는 22個大學이 전부 필수나 또는 선택과목으로 講義되고 있었다. 이는 司空哲 교수의 情報檢索論(아세아문화사, 1977, 284p.)이 교육을 위한 教材로서 간행된 것에 아마도 가장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데 공헌을 하였다고 하겠다.

실제로 情報檢索論에서는 索引法과 機械的處理

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가지고 있으며 1977년을 전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分野의 圖書館學的인 受容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 후 랭커스터(Lancaster, F.W.)의 정보검색론(서울: 구미무역, 1985)이 윤구호, 김태승 양씨에 의하여 완역되었고 정영미씨의 정보검색론(서울: 정음사, 1987)이 간행됨으로서 情報檢索論이 도서관학에 착실히 정착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圖書館自動化論은 1975年代 後半에 본격적인 논의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5년에 KORSTIC에서는 컴퓨터를 도입하여 科學技術文獻의 情報檢索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¹³⁾ 각급 도서관에 있어서도 도서관의 컴퓨터 적용을 시도하였다. 1980년에 서울大學校에서 착수한 西洋書의 電算化 그리고 1979년부터 시작된 국립중앙도서관의 KORMARC Project 등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圖書館自動化에 대한 認識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펴낸 圖書館電算化入門(도서관협회, 1981, 340p.)과 정영미 씨의 도서관 정보 전산화론(구미무역, 1982, 365p.)이 이러한 도서관의 전산화 추세에 맞추어 간행되었으며 그 理論의 土臺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착수하였던 KORMARC는 1980년에 한국문헌자동화 목록법-실험용 포며, 단행본용(등사판, 국립중앙도서관, 1980)로서 기초작업을 완성하였다. 이후 계속된 KORMARC

11) 鄭駟謨, “圖書館教科課程의 模型化를 위한 研究”, 圖書館學報(中大) 第4輯, 1983, pp.33-73.

12) 나머지 7個大學은 도서관학개론만 강의되고 있었다. 情報學概論만 교육하는 大學이 도서관학을 제외한 情報學만을 강의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文獻情報學의 범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3) 崔成溶, KORSTIC의 情報處理機械化計劃. 情報管理研究 7(3), 1974 4: 61-66.

의 진행은 1986년 필자의 自動化目錄法序說(아세아문화사, 1986, 201p.)로서 중간보고형식의 출판물로서 보고되었다. 이보다 앞서 테드(Tedd, L.A.)의 도서관전산시스템(구미무역, 1985)이 김두홍, 유길호 양씨에 의하여 번역 완료되었으며 이를 教材로 삼아 大學에서의 圖書館電算化問題가 강의되도록 하는데 공헌하였다.

이와 같은 情報學概論과 情報檢索論 圖書館自動化論이 도서관학과에 定着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도서관학과의 상충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鄭駉謨 교수의 見解는 情報學의 여러 分野는 圖書館學에 統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圖書館學은 入門科目에 해당하는 教科目이 3科目(圖書館學概論, 情報學概論, 書誌學概論)이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3가지 分野를 一貫된 論理로 體系化시키지 못한다면 圖書館學은 끝내 體系的인 學問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中略) 그러므로 이들 教科目은 모두 圖書館學概論에 受容되어야 하며 별도 개설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全南大學은 「도서관정보학개론」 한 科目만 入門科目으로 開設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처리라고 볼 수 있다.”¹⁴⁾

그러나 情報學의 영역은 情報의 自動化處理가 당위성을 띄우는 現實的 擴張이 실현되어감에 따라 더욱 더 教育하고 研究해야 할 分野가 증가하게 되며 自動化技法이 날로 발전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새로운 知識을 흡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知識이 圖書館學概論이나 參考業務 등의 범주에서 일괄 처리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른다 하겠다. 이와 같은 근관성은 圖書館學의 명칭을 개정하여 情報學을 적극적으로 受容하려는 傾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1975年以後 情報學과 연관된 여러 분야가 教育

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중에서 모든 大學에서 공통적으로 教育된 것은 原論과 檢索論 그리고 自動化論이었다. 그러나 이미 情報學의 여러 分野가 圖書館學 教育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에서 學問名稱의 改定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IV. 圖書館學名稱의 改定을 위한 시도

圖書館學에 情報學關聯 教科目이 대폭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자 諸外國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學名改定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문제를 가장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하였던 것은 1971년에 매우 짧은 글이지만 심도있는 문제를 부각시켰던 이재철 교수의 “문헌과학과 문헌사의 소임 : 「도서관학」의 학명과 「사서」의 직명 개칭을 바란다”라는 글이었다고 생각한다.

“…(前略) 수년전부터 필자(이재철 교수)는 대학의 강의실을 통하여 이러한 중요한 소임을 맡은 자를 「司書」라고 지칭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문헌사(文獻士, 文獻師)—공무원일 경우는 「문헌사」, 「문헌관」, 「문헌감」으로 개칭할 것을 주장해 왔다. …(中略) 아울러 「Library Science」도 「도서관학」이라는 지역적인 명칭을 지양하여, 「문헌학」 「문헌과학」 또는 「문헌정보학」의 명칭중 하나를 택하여 부르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중 「문헌학」이라는 용어는 이미 「philologie」에 대한 우리말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다의성(amiguity) 관계로 이 말은 피하고 「문헌과학」이나 「문헌정보학」중에서 택일하면 좋을 것이다.”¹⁵⁾

14) 鄭駉謨, “圖書館教科課程의 模型化를 위한 研究”, 上揭論文, pp.61-63.

15) 이재철, “문헌과학과 문헌사의 소임 : 「도서관학」의 학명과 「사서」의 직명 개칭을 바란다. 도서관 26(5), 1971 오 : 3.

이와 같은 見解는 鄭駢謨 교수의 “圖書館名稱의 變遷에 대하여”라는 論文¹⁶⁾에서도 표명되었으며 계속하여 “學問名稱으로서의 「文獻科學」에 대한 再考”¹⁷⁾등 일련의 論文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文獻情報學原論」이란 署名으로 저서를 간행한 鄭駢謨 교수는 이미 學問名稱의 改定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學問名稱의 改定은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3년에 이르러 우리의 學名을 韓國圖書館學會의 명칭에서부터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83年度の 한국도서관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및 학회명칭개정 세미나가 4월 30일 연세대 인문학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 때에 발제로서는 심우준 교수의 “외국 도서관학의 명칭 현황: 일본, 자유중국 및 중공을 중심으로”와 이두영 교수의 “외국 도서관학의 명칭 현황: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상완 교수의 “학회명칭개정 설문분석 결과보고”였다. 도서관학의 역사로 본다면 이 세미나는 情報學의 영역확대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응집된 결과를 발산하는 하나의 도전이라 하겠으며 전통적인 圖書館學의 측면에서 보면 이에 대한 응전이었다. 결과는 圖書館學의 傳統性을 고수하자는 의견을 귀착되었다.¹⁸⁾

그러나 이때의 논의는 大學의 圖書館學科의 名稱을 개정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84年 10月 6日 全南大學校 圖書館學科가 文獻情報學科로 명칭을 改稱하였던 것이다.¹⁹⁾ 뒤이어 1987년에는 漢城大學校 圖書館學科가 文獻情報學科로 改定하고 1988年度에는 中央大學校, 全州大學校, 忠南大學校의 圖書館學科가 文獻情報學科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1983年 4月의 여파는 이에 멈추지 않았다. 1984年 5月 12日에 있었던 韓國情報管理學會의 結成이 그것이다. 이 學會는 情報學을 담당하는 教育者와 現場에서 컴퓨터와 더불어 직접 작업하는 情報管理者로 구성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이들 구성원의 대부분이 정규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연구자들이며 사회적인 기반도 확립된 현직자란 점이다. 이는 이 學會가 독립된 學問領域을 개척하려는 의도에서 결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圖書館學의 영역확장으로 情報學의 主題를 적극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學問名稱改定에 대한 논의는 현재에도 찬반 양론이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V. 1989年 現在의 狀況

최근에 情報學教育의 位相을 가장 명백하게 분석한 중요한 報告書가 발표되었다. 그것은 최성진 교수의 “정보학교육의 개혁방안 연구”²⁰⁾이다. 1982年 鄭駢謨 교수의 조사보고와 더불어 이번 연구보고서는 우리에게 놓여진 한 시대의 전환점을 상심하는 듯한 예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 16) 鄭駢謨, “圖書館名稱의 變遷에 대하여”. 圖書館學 2輯, 1972 십이 : 63-78.
- 17) 鄭駢謨, “學問名稱으로서의 「文獻科學」에 대한 再考”, 도협월보 13(9), 1972 구 : 15-16. 이 논문에서 文獻情報學이란 학문명칭이 구체화된다.
- 18) “한국도서관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및 학회명칭개정 세미나 개최”(彙報). 圖書館學 第10輯, 1983 : 205.
- 19) 문헌정보학보-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제2집, 1986 : 218.
- 20) 최성진, 「정보학 교육의 개혁방안 연구 : 연구기간 1988. 7. 1~1989. 4. 30」, (서울)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1989, 108p. 1988년 서봉학술연구비에 의한 연구로서 정보학분야에서 연구 또는 개발된 주제(1977~1986) 304 분야를 중심으로 도서관학과 교육자, 졸업자, 정보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된 실증적 연구임.

연구이다. 1988년 7월 1일부터 1989년 4월 30일까지 도서관학 교육계와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정보기관 종사자 그리고 정보관 운영자를 중심으로 설문지 조사방식으로 연구 분석된 결과는 일곱가지로 결론지워지고 있다. 그 중에서 본 주제와 관계깊은 사항만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학과는 대부분 정보학의 교과목으로서 「정보학개론」, 「정보검색」, 「도서관자동화」의 세 과목을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둘째, 정보학 분야에서 연구 개발된 주제중에서 평균 46.1%는 우리나라 도서관학과에서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주제는 교육되고 있지 않다.

셋째, 도서관학과 교육을 이수한 졸업자가 현장의 정보처리업무를 담당하고 난 다음 자신이 이수한 교육의 효용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넷째, 정보관 운영자들은 정보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실무활동과 직접 관련지워볼 수 있는 실습기회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상의 지적은 우리중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事實의 확인이다. 현재 情報學教育의 범주는 基礎的인 分野에 한정되어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들 한정된 분야도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現場과는 분리되어 있다. 이 두가지는 情報學을 다루는 圖書館學 教育者로서는 심도깊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최성진 교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는 정보학 분야의 교육내용 확장과 특성화에 관한 제안이다.

“…前略 (각 대학 도서관학과에서 교육되는 정보학분야의) 중복된 주제들을 가르치는 일은 정보학의 기본적 원리와 기술로 한정하여 최소화하고 학과별로 교육내용을 최대한 특정화하여

정보학 분야의 모든 연구성과들이 빠짐없이 우리나라의 어느 한 도서관학과에서라도 다루어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교육중 정보처리 현장의 실습을 강화하며 졸업자의 의견을 교육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다.

“(정보학 교육이) 적절한 실습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성질의 기술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도서관학과와 정보학 교육이 실습과정이 부실하거나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보관리 실무에 직접 유용한 정보학 교육을 위해서는 재학중 학생들에게 충분한 실습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中略 정보학 교육은 결국 그들을(졸업자들) 위한 것이므로 그들의 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정보학 교육의 실체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정보학의 운영자가 주장하는 실무실습에 대한 주장을 수용하며 情報學教育課程을 개편할 때 그들의 意見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바람직한 정보관리 전문직의 교육을 위해서는 정보학 교육자와 정보관 운영자가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하므로, 즉 정보학 교육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보학 교육자는 도서관학과 졸업자의 사용자인 정보관 운영자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정보학 교육의 실체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情報學教育의 상황을 이보다 진지하며 솔직하게 분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情報學과 관련된 분야의 回顧를 論著述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 된다. 이 시점에서 볼때 한국의 情報學은 이제부터 分化와 高楊의 시기를 맞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가속적으로 발전

하고 있는 정보기법을 수용하기 위한 分化가 요청되며 한편으로는 세분된 각각의 이론과 기법을 高揚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課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공통된 문제이며 이에 우리도 직면하게 된 것뿐이다. 당연한 과정이자 거쳐야 할 절차이긴 하지만 우리에게겐 더욱 더 어려운 난관이 가로막고 있는듯 하다. 다음 項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이를 과제가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VI. FIABID의 教科課程研究에 입각한 情報學의 展望

우리는 이제부터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융합을 본격화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圖書館學의 전통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그 한계 내에서 변화를 수용하려는 보수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 변화에 대한 적극성은 감퇴될 수 밖에 없다. 1983년의 도서관학회 명칭변경의 시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때 보수성의 강화만으로는 변천하는 시대적 상황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현재 어떤 방향으로 圖書館學과 情報學을 융합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아무런 시도도 우리 도서관계는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論議가(마치 1970~1975년에 있었던 바와 같은) 이제부터라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여기 두 항목에 걸쳐 소개되는 教育 프로그램은 우리의 논의가 시작되기 위하여 또한 변화의 양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인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여 지나치게 간략하게 압축한 것이긴 하나 독일의 FIABID-教科課程은

한국의 情報界 現象과 매우 유사한 조건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의 모델로 주목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다음에 소개되는 미국의 情報시스템學科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도서관학과 정보학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두고 싶다.

6.1 FIABID의 情報學教科課程 研究

독일에서는 1976년에서부터 「圖書館情報·도큐멘테이션의 統合的 教育概念」(Integrierte Ausbildungskonzeption Bibliothek,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이란 연구계획을 연방정부의 조직인 研究技術省에 의하여 추진시켜 왔다. 이 연구계획중 教科課程에 대한 研究는 독일 도큐멘테이션 협회 회장이며 도큐멘테이션 教育 研究所長인 Thomas Seeger와 그의 공동연구자인 Gunter Windel, 그리고 Gernot Wersig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1979년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었다. 연구보고서의 명칭은 FIABID-Curriculum (Forschungsprojekt Integrierter Ausbildungskonzeption Bibliothek Information Dokumentation-Curriculum)으로서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도서관 및 정보학 교육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한 연구라 하겠다.²¹⁾ 연구방법은 어디까지나 定性的 研究로서 다분히 관념적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서관학의 이념과 관행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영역을 흡수하는 방침이 명백하게 정립되어 있으며, 연구의 기반을 社會的인 變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21) Thomas Seeger, et. al., "FIABID-Curriculum : Untersuchungen zum qualitative Ausbildungsbedarf in Bibliothek,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 und zu strukturen und Curricularen Ansaetzen. 1979 간행.

가치있는 事例이며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 크다 하겠다.

연구의 방대성과 독일 특유의 여건으로 초래된 특수성에 비추어 중요한 논점만을 간결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체적인 이해의 간결성을 위하여 (설혹 세부적인 면에서 누락이 있을지라도) 도표화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의 기반이 社會的 變動에서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學位制度도 연결되는 過程을 약술하여 둔다. 이는 情報學과 圖書館學의 융합에 관한 시도는 최소한 FIABID의 教科課程에서 보여준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있다. <圖表 1>에서 보여 보듯이 FIABID는 社會的 變動과 그러한 變化가 情報專門人에게 요구하는 경향 및 추세의 분석에서부터 시작된다. 社會全體의 情報的 要求는 증대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증대시키며 또한 새로운 情報는 새로운 情報的 要求를 낳는다. 이러한 社會的 情報的 變化는 圖書館과 情報館에 대하여 새로운 요구를 強制한다. 文獻指向의 지금까지의 정보처리방법은 이제 情報電子媒體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며 情報專門家의 유연성과 창조성등을 강요한다.

이러한 社會的 變化와 일련의 社會的 強制(reinforcement)에 의하여 생겨난 情報關聯 職業像으로서(독일의 경우에는) 다섯가지 유형의 전문 인상이 대두된다. 즉 大衆情報 시스템에 종사할 여가 커뮤니케이터, 학문적 커뮤니케이터 등이 있으며 科學情報 도큐멘테이션 시스템에서 종사할 문헌탐색 전문가, 정보검색 전문가 등이 있다. 行政情報 시스템에서는 情報法學者가 필요해지며 자연스럽게 변호사도 필요해진다. 經營情報 시스템에서는 情報專門家뿐만 아니라 데이터保護를 책임지는(실제로는 설계자) 專門家가 필요해진다. 끝으

로 情報科學이 社會에 있어서 중요한 學問으로 대두되어감에 따라 情報科學研究者가 필요하게 된다. (보다 상세한 것은 <圖表 1>을 살펴보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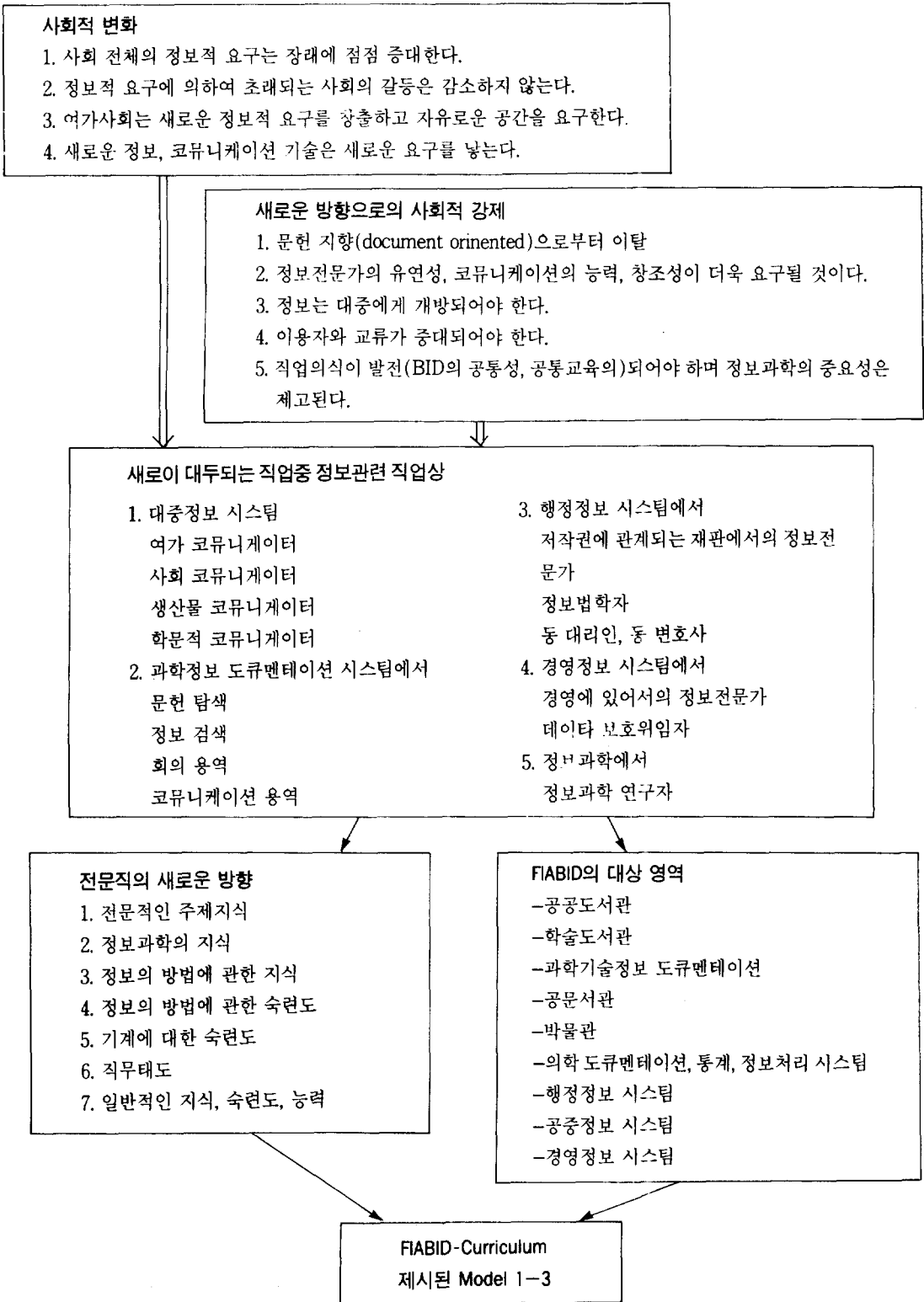
대체로 여기까지는 社會的 變動에 입각한 情報分野의 새로운 추세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FIABID의 보고서를 지나치게 축소한 감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관련 직업상을 도출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각국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새로이 대두된 情報關聯 職業에서 요구되는 專門職의 프로파일은 선택된 어떤 主題에 대한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말하자면 주제배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위에 情報科學에 대한 지식과 정보처리기술 그리고 機械(여기서는 주로 컴퓨터임)에 익숙한 숙련도를 부과한다. FIABID에서는 정보전문가의 직무태도를 중요한 한 요소로 들고 있으며 이에 는 피교육자의 性向과²²⁾ 意識(예컨데 기술도입의 필요성과 그 한계점의 인식등)이 관건이 된다. 이와 같은 情報專門家의 직무태도를 향상시키려는 교육을 教科課程속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루틴워크(Routine Work)의 인내성 훈련, 팀 워크 등을 통하여 성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FIABID가 시행될 때 現場業務의 대상을 선정하여 教科目標을 명백히 설정하고 있다. <圖表 1>에서 보듯 對象領域은 공공도서관을 위시하여 공문서관, 박물관까지

22) 정보전문가의 性向은 관리지도능력, 이용자의 교류능력, 팀에 가담하는 협동심, 전략적 사고와 문제해결성향, 비판능력, 문헌생산자와의 협력능력, 계획성을 들고 있다. 이 문제는 교육의 중심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문직에 요구되는 사항이며 교육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圖表 1〉 FIABID의 전체적인 연구 과정



하나의 영역으로 삼고 의학 도큐멘테이션 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 공중정보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을 다른 하나의 영역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FIABID-Curriculum이 試案되었다. 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文獻指向의 대상 영역(즉 공공도서관, 문서관등)을 위한 교육과 데이터 指向(FIABID에서 지칭하는 용어로는)의 대상 영역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FIABID의 대안은 세가지 모델로 제시된다. 첫째는 完全統合型이다. 이 모델에서는 學士學位에 情報士 자격을 부여하여 전문주제와 정보학 과목을 이수시키고 정보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문헌지향의 정보처리(예컨대 목록분류등)와 데이터 지향의 정보처리(예컨대 검색 언어, 정보시스템등)를 전체적으로 교육한다. <圖表 2>에서 정보 관련 방법 과목의 제 1 단계가 이에 속한다. 제 2 단계에서는 제시된 대상 영역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분야를 각각 한 科目씩(두 科目이 된다) 선택하여 교육받게 된다.

모델 2는 이른바 文獻 指向과 데이터 指向 課程을 완전히 분리하고 學位도 “學士-司書”와 “學士-도큐멘테이션”으로 구별하여 부여하는 것이 특색이다. 모델 1에 있는 전문주제학과 정보학과 과목은 공통이 되며 정보관련 방법론에서 제 1 단계 과정은 배제하고 직접 活動영역(즉 대상영역)을 선택하여 전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分割方針은 독일의 현상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에게도 示唆되는 바 크다)

모델 3은 最小統合으로서 모델 1에 제시된 (다) 정보관련 방법 과목을 완전하게 분립시켜 活動영역별로 學士學位를 세분한 것이다. “학사-공공도서관 사서”에서 시작하여 “학사-학술도서관 사서”와 “학사-도큐멘테이션”을 구분한 점은

圖書館의 일반적인 구분인 공공, 대학, 전문 도서관으로 유별한 것으로 간주된다. “학사-정보시스템”은 컴퓨터에 의한 특정 분야의 정보처리에 대응한 것으로 FIABID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상 세가지 모델은 공통영역으로서 전문주제를 이수하고 情報學科目(모델 1에 제시된 과목)을 기본 과목으로 수료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들 基本科目은 명칭상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나 전통적인 圖書館學의 모든 科目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FIABID는 情報學과 圖書館學의 완벽한 統合化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教科目도 상세한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최대한으로 간결하게 과목명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로 아직도 教科目名으로서는 전혀 합당치 않은 것도 있으나 그 내용이 참고됨으로 그대로 열거하여 둔다. <圖表 3>에서 學群으로서 8개 분야로 대구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앞의 네개의 學群 즉 基礎·方法論, 情報實務, 情報言語學, 시스템 分析은 圖書館學에서 일반적으로 교육되는 내용과 情報學의 統合型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인 4분야 즉 情報社會學, 情報政策, 情報法, 情報經濟學은 정보로 인하여 초래되고 있는 社會經濟的 現象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독특한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情報社會學은 이미 圖書館과 社會와 같은 전통적인 學問分野가 있었으나 現代社會의 특성이 情報에 기인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文化的 構造임을 분석하는 論理로서는 이미 社會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 여러 분야는 앞으로 중요한 學問分野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된다. 情報法이란 科目도 이제부터는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知的財產權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이며 情報產業

〈圖表 2〉 세개의 모델과 內容

모델 1 : 완전 통합 “學士—情報士” Diplom- Information swirt	
<p>가. 전문주제학(약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학 -생물과학 -인문, 사회과학(중한과목선택) <p>나. 정보과학 과목(약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방법 -정보공학 -정보경제학 -정보사회학 -정보정책, 정보관련법 -정보언어학 	<p>다. 정보관련 방법 과목(약 40%)</p> <p>제 1 단계 : 문헌과 연관된 정보방법 전반 +데이터에 연관된 정보방법 전반</p> <p>제 2 단계 : 문헌에 결부된 정보방법중에서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학 -문서학 -박물관학 <p>: 데이터에 결부된 정보방법중에서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보 도큐메이션 -경영정보 시스템 -공중정보 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 -실습 4개월(필수)
<p>모델 2 : 부분적 통합</p> <p>도큐먼트(문헌) 지향 과정</p> <p>“학사—사서” Diplom-Bibliothekare</p> <p>정보관련 방법 과목은 다음 활동영역을 고려(위 가, 나는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도서관 -학술도서관(특히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과학기술 도큐멘테이션 시스템 -문서관 / 박물관(여기서는 단계 필요) <p>데이터 지향 과정</p> <p>“학사—도큐멘테이션” Diplom-Documentar</p> <p>정보관련 방법 과목은 다음 활동영역을 고려(위 가, 나는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정보 documentation system -경영정보 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 -공중정보 시스템 	

<p>모델 3 : 최소 통합</p> <p>“학사-공공도서관의 사서” Diplom-Bibliotheker an oeffentlichenn bibliotheken</p> <p>모델 2의 공공도서관 전공이 독립</p> <p>“학사-학술도서관의 사서” Diplom-Bibliothekar an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p> <p>모델 2의 학술도서관 전공이 독립</p> <p>“학사-문헌 도큐멘테이션” Dipom-Dokumentar in der Literaturdokumentation</p> <p>다음의 영역을 전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보 도큐멘테이션(특히 문헌 도큐멘테이션) -문서관 등기소 -특별문서 -박물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도서관 <p>“학사-정보시스템” Diplom-Documentar in Informationssystemen</p> <p>모델 2의 “학사-도큐멘테이션”과 상응</p>

〈圖表 3〉 FIABID-Curriculum의 學群과 內容

學 群	學 科 目	주요 내용
基礎·方法論	정보과학 입문 정보의 역사 정보과학 기초개념 정보과학 연구	· 기초개념은 다분히 도서관학적인 접근 분야이다. 이에는 도큐멘테이션, 데이터의 정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情報實務 (情報工學)	文獻記述의 全過程 정보실무의 보조수단 文獻의 定型的인 記述 標準化 文獻의 內容的 記述 정보봉사 시스템과 기능 編纂技術 데이터의 記述 全 프로세스	· 보조수단에는 컴퓨터 기초이론과 인쇄 사진식자 방법등이 포함된다. · 문헌의 기술은 목록을 의미, 내용기술은 분류에 해당된다. · 정보서비스론으로 정보 포함, 참고봉사 업무가 포함된다. · 목록의 공정과정 포함

情報言語學	정보언어학 기초 검색언어의 유형과 구조 검색언어의 이용 검색언어의 편성 정보언어학 연구	· 자연언어, 의미론 등이 언어학에 포함된다. · 디저러스 키워드 분류 등이 전부 포함된다.
시스템分析	정보시스템의 개념과 체계 시스템분석과 설계방법 시스템분석의 실제	
情報社會學	정보사회학 기초 利用者 研究의 方法 利用者와의 關係 利用者 研究 演習	· 이용자의 조사방법론등 · 정보전문가의 유연성, 창조성등 강조 · 커뮤니케이션 구조등
情報政策	독일의 정보정책 정보노동의 국제관계 정보직업	· 국제적 규모의 계획과 協力方案 등이 포함된다.
情報法	정보법의 기초 데이터 보호법 정보직업의 관련법 정보법의 특수 문제	· 저작권법, 특허법등 · 공무원법중 정보직업관련법 포함
情報經濟學	情報企業經營論 情報の 국민경제학 情報企業의 管理論	· 기업으로서의 情報機關 · 국민경제중 정보활동 · 회계, 문서, 노무관리 등이 포함된다.

關聯法, 文化財關係法 등도 점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FIABID-教科課程을 최대한으로 압축하여 소개하였다. 무리하게 단축시켜 가면서도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여건이나 인식의 수준이 매우 흡사하다는데 있다.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그리고 전문도서관을 중요한 활동영역으로 취급하고 이에 공문서관과 박물관을 흡수하여 소위 문헌지향의 도서관 분야를 확대하려 함이 우리의 여건과 흡사하다.

뿐만 아니라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도 공중정보 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등 우리 사회에서도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電算網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FIABID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모델이며 특히 研究 프로세스에 있어서 示唆되는 바는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6.2 미국 케리포니아 주립대학의 情報시스템學科 教科課程

미국에 있어서 圖書館科의 教科課程은 이미 1960년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아직도 變動의 渦中에 있다. 최근에 케리포니아 주립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 Chico)에서 창설한 情報시스템學科(Information Systems)은 기존의 圖書館學科(또는 情報學科)를 하나의 複合科學의 教育課程(interdisciplinary curriculum)으로 再編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새로운 學科로서 圖書館學으로서는 중요한 도전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이 學科는 1982年 Gillespie, R.이 美國國立科學財團의 연구비로서 시행한 “컴퓨터와 高等教育”이란 研究를 기초로 한 것이다.²³⁾ 1984년에 케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情報시스템學科를 설치하면서 1986年 Frances L. Grant와 Robert G. Main이 이 學科에 대한 學界의 反應과 情報處理事業界의 의견을 조사하는 設問調査를 행하였다.²⁴⁾

이 調査의 目的은 情報시스템學科의 教科目設定이 妥當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 전반적인 回答를 찾아 내려는데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문제에 대한 反應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 1) 情報시스템學科에 설정되어 있는 教科目에 대하여 그 構成과 細分化 方針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 2) 教育者가 아닌 專門家들의 견해는 긍정적인가?
- 3) 情報專門家로서 이 學科의 졸업생은 고용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情報시스템學科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컴퓨터科學, 圖書館學, 經營學과 커뮤니케이션 技術을 통합한 教科課程으로 운영된다.”²⁵⁾ 우선 教養科目은 48學點을 이수하고 66~69學點을 전공과목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은 먼저 커뮤니케이션 學科에서 15學點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情報科學

에서 15學點을 취득한다. 副專攻으로는 컴퓨터科學에서 21學點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중에는 컴퓨터 언어 한가지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이상 51學點을 이수한 후 자신의 지망에 따라 또는 재능의 판정에 따라 테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 教育支援시스템(Instructional Support Systems), 情報蓄積 및 檢索시스템 등 4개 분야중에서 한 분야를 선택한다. 여기서 15 내지 18學點을 취득하여 전체 66學點 내지 69學點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 각 분야별 과목의 명세와 전체적인 편성은 <圖表 4>와 같다. (科目名稱의 오역을 막기 위하여 原文대로 인용한다) 주목할 것은 각각의 科目에는 圖書館學과 밀접한 關係를 가진 分野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통적인 分野(에컨데 目錄學, 分類法 등)의 科目名은 찾아볼 수 없다. 말하자면 철저하게 컴퓨터에 의한 情報處理技術에 중점을 두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理論이 오히려 기초학문으로 도입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Frances L. Grant의 조사는 이 學科의 존속 가능성에서부터 각각의 科目에 이르는 평가조사까지 세밀하게 전개되었다. 심지어 情報시스템學科의 졸업생이 취업한다면 얼마만큼의 俸給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程度를 가늠하기 위한 조사까지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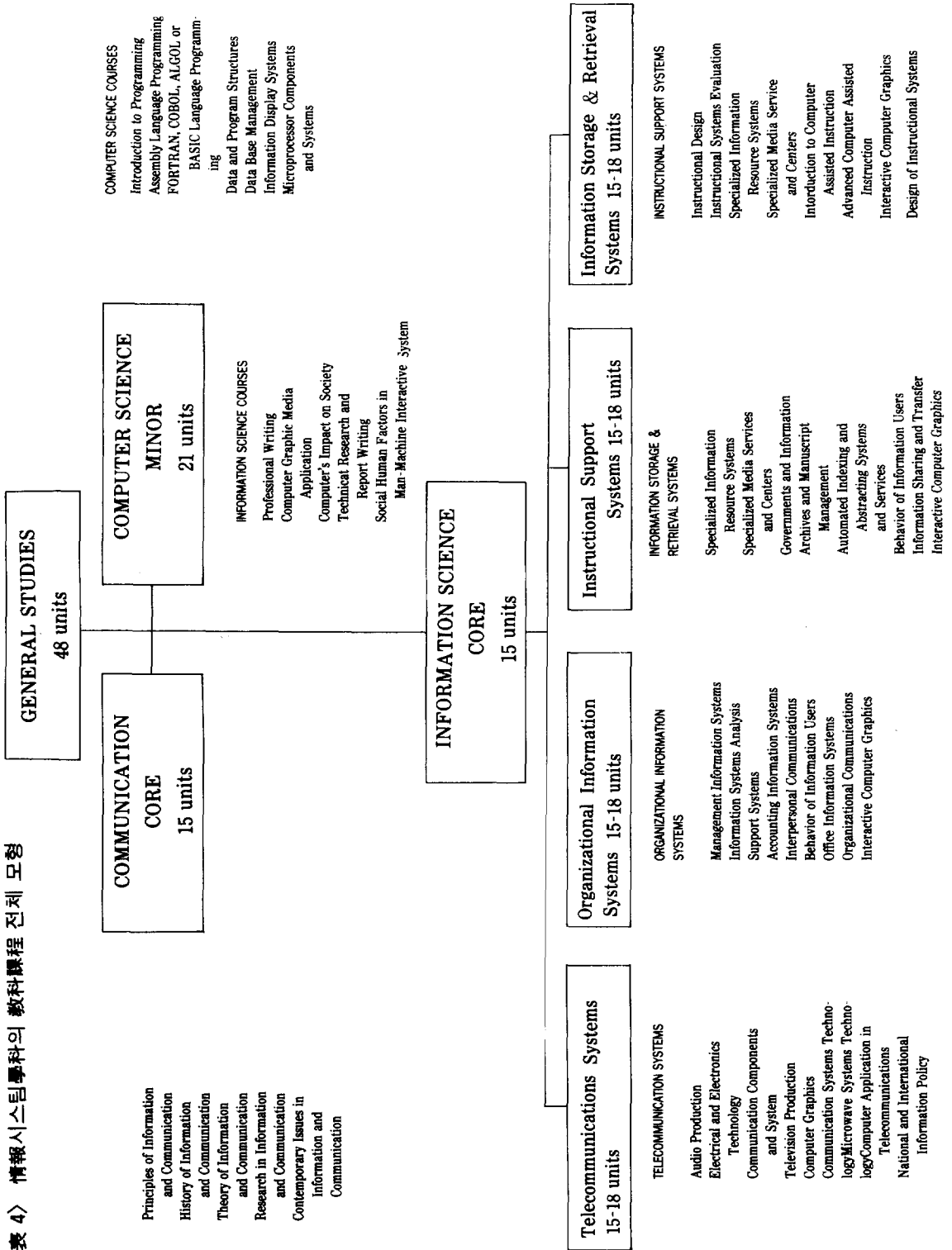
여기서는 최종 결론만을 간결히 소개해 두고자 한다. 첫째로 情報시스템學科는 고등교육계나 企業經營界로부터 긍정적인 反應을 받았다. 19

23) Gillespie, R., “Computing and Higher Education : An Accidental Revolution”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o. SED-7823790, 1982.

24) Frances, L., Grant, G., Main의 反應조사. “Curriculum 1984 : Meeting the needs of information age”, Journal of the ASIS, 37(1) 1986, pp. 12-19.

25) Gillespie, R., op. cit., p.12.

〈圖表 4〉 情報시스템學科의 敎科課程 전체 모형



80年代以後의 職業으로서 이 學科의 졸업생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두번째, 다만 테러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전공하는 분야에 대하여서는 비판적이며 부정적이었다. Frances L. Grant는 이 결과는 문헌상으로는 열렬하게 주장되고 있는 情報社會에 대한 社會的 認識은 예상되었던 것에 비하여 현격하게 저조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專攻分野는 적절한 시기가 오기까지는 당분간 보류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²⁶⁾

셋째, 職場情報시스템을 전공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기본방침에 대하여서는 많은 기업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는 事務自動化가 추진됨으로써 초래된 情報專門家의 수요가 증대하여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教育情報시스템專攻이 두번째로 인정을 받은 분야이다. 그러나 教科目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情報蓄積 및 檢索 專攻分野는 예상과는 달리 매우 낮은 호응도를 받았으며 教科目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서는 SLA(Special Library Association) 과 ASIS(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의 재평가와 조정을 통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끝으로 컴퓨터 科學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학자의 견해는 情報시스템學科가 결코 자신들이 이끄는 學科에 비하여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아마도 학자들의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자긍심에서 보인 거부반응일 것이다.

결국 情報시스템學科의 出現은 圖書館學科 또는 이에 준하는 學科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시도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목되는 것은 전통적인 도서관학의 개념은 정보시스템學科에서는 배제되

어 있거나 있다 하더라도 퇴색되어 있는 점이다.

VII. 결 언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 圖書館人은 아래에 열거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融合은 촉진시켜야 한다. 이는 時代가 요청하는 것이며 圖書館學이 가야 할 역사적 귀착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이 그러하듯 情報學과의 融合이 圖書館學의 폐기를 뜻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圖書館學으로의 統合으로만 고수할 수도 없다. 이것은 이미 앞의 回顧를 통하여 學間名稱改定을 에워싼 논쟁이(第4項 참조) 결과적으로 大學에 있어서 文獻 情報學科의 出現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으며 情報管理學會라는 새로운 分化現象을 초래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우리도 독일의 FIABID-教科課程과 같은(6項 참조)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融合(integration)을 꾸준히 시도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시도가 멈춰지거나 불충분할 때에는 우리는 退行하는 것이다.

둘째, 社會的 變化를 직시하며 情報分野의 雇傭市場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한국의 社會도 情報의 需要는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으며 일반 공중정보시스템을 위시하여 행정정보, 교육정보등의 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 가고 있다. 기업의 정보적 수요도 급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O.A.나 F.A.등 컴퓨터의 이용이 계속하여 증가되는데 있다. 결국 이들

26) 테러 커뮤니케이션 전공분야는 이 조사가 시행되어 결과가 나온 후 곧 폐지되었다. Frances L. Grant, Ibid., p.18의 각주 참조.

컴퓨터 시스템은 정보의 처리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情報理論과 實務技術을 익힌 두뇌가 필요해 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뇌의 필요성은 반드시 도서관 학이라는 범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시도하는 Information system 학과와 같은(6項의 2 참조) 새로운 대응이 社會에서 요구하는 需要일 수도 있는 것이다. FIABID의 分析方法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치밀하며 현실적이다. 우리에게도 社會의 變化와 情報管理 專門職에 요구하는 社會的 強化 그리고 새로운 像으로 부상하는 職業의 種類를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의 方向을 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學士制度를 專門制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大學院課程에서 實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大學의 四年에서 실천적인 정보 전문가를 양성하며 그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제도하에서는 FIABID에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은 학사-사서(Diplom-Bibliothekare)와 학사-정보시스템(Diplom-Dokumentar in Informations systemen)과 같은 분할이 필요하다.

이것은 최성진 교수가 제기하였던 情報學教育의 大學別 特性化(5項 참조)와도 밀접한 연관하에 이제부터 研究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넷째, 情報學 教育者는 情報處理現場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결코 해외에서의 경험이나 현장 실습이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준용할 수 없다. 해외경험만 표방하면서 現場의 업무를 비판하는 자세만으로는 더욱 더 現場과 격리되는 것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가 된다. 정보처리 현장의 고충과 애로를 배우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共同의 努力이 필요하다. 사실 大學으로부터 現場의 정보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제작하거나

발명하여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장래에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지만 현재로는 教育者가 實驗되고 있는 現場의 시스템을 먼저 알고 후에 협동하여 개선하는 학구적 태도가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現場人과의 合同會議 또는 研修制度 등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위와 같은 제안은 教育者가 스스로 요청하며 조직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現場의 情報處理方式은 理論的이기 보다는 實現性을 강조하며 완벽주의이기 보다는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教育者의 의견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教育에는 情報處理現場의 實務者가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情報學特講, 圖書館學演習과 같은 學科目은 現場人의 참여를 위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금기하려는 경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른바 도서관학과를 이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몇몇 대학에서 現場의 어느 누구에게 문호를 연 적이 있는가를 자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응은 충분하리라고 생각된다.

여섯째, 圖書館學 또는 情報學의 學會는 教育者 會습이 되어서는 안된다. 教育者만이 研究者는 아니다. 現場의 圖書館 實務者, 情報館의 技能者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론성이나 연구의 조직력에 있어서 결함이 있을지라도 現場의 개선을 위한 실증적인 연구자인 것이다. 대체로 우리는 現場人에 대하여 學界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여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예컨대 현장의 문제를 토의할 수 있게 하는 기회 부여 또는 새로운 시스템이 운영되었을 때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일, 학회운영에 적극 가담하기 위한 운영팀에의 참가 권유 등은 없었다. 사실은 권장이 아니라 기피였거나 거부였다함이 보다

옳은 판단일 것이다.

최근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心理學의 學者, Maslow, A.H., Rogers, C.R., Rollo May 등은 전부 心理學의 理論家이자 臨床研究者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圖書館學와 情報學의 教育課程은 特別 研究會를 구성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오늘날 어느分野에 못지않게 급격한 變化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볼때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情報處理技法은 2年 내지 3年을 넘기지 않고 새로운 技法이 제시되며(예컨대 dBASEⅢ는 이미 dBASEⅢ+로 변화하였고 조만간에 dBASEⅣ가 한국에도 시판된다) 이것을 受容하는 한에 있어서

圖書館이나 情報館의 내용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教育은 이 變化를 예견하고 앞장서서 관계되는 지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의 學界와 現場은 이 문제를 1970년부터 提起해 왔으며(1項부터 3項 참조) 이 問題에 대하여 專念하는 研究者도 확보되어 있다. 이제 와서 反省해 보면 教育課程에 專念한 여러 研究者의 반응이 그간에 너무도 소홀한 것이었으며 그만큼 우리의 위치도 퇴행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教科課程研究委員會(가칭)를 상설기구로 설치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개척하는 바가 될 것이다.